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본진 출국 “후회 없이 즐기길”

출국 전 촬영식 가져
패럴림픽은 28일부터
사전캠프 참가 종목
144명은 먼저 출국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본진이 결정지로 떠났다.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은 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기 전 촬영식을 가졌다. 이날 촬영식에는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배동현 선수단장, 백경열 선수부단장, 하나금융그룹 이은형 부회장, 선수단 본진, 시도 장애인체육회, 가평경기단체 임직원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배동현 선수단장은 “오랜 시간 뛰 흘리며 최선을 다한 우리 패럴림픽 영웅들이 이번 대회에 모든 경기를 후회 없이 즐기길 진심으로 바란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있다면 준비된 영웅들이 한계를 넘어 승리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파리 패럴림픽은 이달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 이어진다. 17개 종목에 177명(선수 83명·임원 94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는 한국은 금메달 5개 이상 획득, 종합 순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지난 14일 사전캠프에 참가하는 9개 종목 144명이 먼저 파리로 출국했으며 이날 선수단장을 포함한 본진(5개 종목 48명)이 결정지로 향했다. /뉴스스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은 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기 전 촬영식을 갖고, 선수단장을 포함한 선수단 본진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레슬링 이한빛 “LA올림픽 도전한다”

완주군수 등, 격려 나서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가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완주군청 여자레슬링팀 소속 이한빛 선수를 격려했다. 유희태 군수는 최근 이 선수를 만나 “국제대회의 경험을 통해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길 바란다”며 격려했고, “우리 선수가 세계적인 대회에서 경기를 했다는 것에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완주군청 선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지훈련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힘을 더할 약속했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이한빛 선수(완주군청 여자레슬링팀)를 격려했다. (사진=완주군청 제공)

유희태 완주군수의회 의장은 “이 선수의 출전 경험이 다른 선수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자레슬링팀의 발전을 위해 응원하겠다”며 격려했다. 이한빛 선수는 “2024년 제33회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뜻깊은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2028년 LA올림픽에 국가대표로서 출전하고자 하는 강한 다짐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선수를 포함한 완주군청 여자레슬링팀은 오는 9월에 국외 전지훈련 등을 통하여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할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순창군, 해외 국가대표팀 전지훈련 프로그램 운영

24일까지 해외 소프트테니스 선수단 40명 순창서 훈련 매진

소프트테니스 메카 순창군이 해외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선수단 전지훈련을 잇따라 유치하며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순창군은 이달 9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필리핀, 동티모르, 대만 국가대표팀과 소프트테니스 선진 기술 선수 훈련인 ‘순창형 소프트테니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전지훈련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소프트테니스협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순창군은 지역 내 소프트테니스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시도지사협의회와 2024 지방 외교 활성화 정책 사업 선정 등을 통해 확보한 2천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해외 선수단의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전지훈련 프로그램은 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되며, 필리핀 대표팀 19명, 대만 대표팀 16명, 동티모르 대표팀 5명 등 모두 40명이 순창을 방문하여 실력



향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편,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19일 해외 전지훈련 선수단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군수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해외 전지훈련단 여러분들이 훈련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용인대 카르텔’ 폭로 후 연금 박탈

안세영 사건에 ‘유도 김재엽’ 재조명

‘땀방 매불쇼’ 출연 김재엽, 안세영 선수의 용기에 “마치 과거의 자신 보는 것 같아”
“본질은 ‘혹사’... 대회서 좋은 성적 내야 협회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 변화해야”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22·삼성생명) 선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갈등 중인 가운데 체육계 부조리를 폭로했던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엽(61) 선수의 사려가 재조명되고 있다.



‘땀방 매불쇼’에 출연한 1988 서울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엽. (사진=땀방 매불쇼 화면 캡처)

김재엽은 지난 8일 ‘땀방 매불쇼’에 출연해 “안세영 선수가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협회 관련해 용기 있게 나섰다”며 “마치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김재엽은 선수 은퇴 후 지도자로 활동할 때, 제자 운동식이 심판의 편과 판정에 피해를 봤다며 유도계 안의 이른바 ‘용인대 카르텔’을 폭로한 바 있다. 1996년 5월 서울 송파구의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에서 열린 애플랜타 올림픽 유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76kg급 승자 결승에서 운동식(마사회)은 조인철(용인대)에 0대 3으로 판정패했다. 이 판정은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운동식은 경기 후 매트에 30분간 주저앉아 항의했고, 그의 스승 김재엽도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유도 대표팀 사령탑이었던 김창호 감독도 “강한 선수를 데리고 가야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강한 선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불만을 나타낸 뒤 경기장을 떠났다. 김재엽은 2021년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을 자세하게 언급했다. 그는 제자 운동식이 용인대 파벌의 편과 판정에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도계에서 용인대만 키우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에 용인대 사람들이 심판위원장까지 다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그는 회고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은 유도 국가대표 하나 만들 수가 없는 분위기라 대학들이 유도부를 없애기 시작, 결국 한국 유도가 경쟁력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다. 김재엽은 제자 운동식 사건 이후 용인대 파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후 그는 유도계에서 퇴출 당했고, 그 배후에 18년간 대한유도회 회장을 맡았던 김정행 전 용인대 총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매불쇼에서 김재엽은 “김정행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자 협회에서 제게 주는 연금을 박탈했다”며 “연금은 나라에서 주는 것만 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유도계에서 저에 대한 자료를 없앴고, 관련 분야에 취입하면 압력을 넣어 일을 못 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안세영 사건에 대해 김재엽은 “지금 우리 시대와 훈련 방법 등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면서 “안세영 선수 폭로의 본질은 ‘혹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 선수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만 협회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안세영은 파리 올림픽에서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냈다. 그는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배드민턴협회의 선수 관리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안세영이 지난 7년간 마태라는 이유로 대표팀에서 빨래와 청소 등 도맡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안세영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7년 처음 대표팀에 발탁됐는데, 이후 선배들의 끊어진 라켓 줄을 교체하거나 방 청소와 빨래 등을 전담하느라 고생했다. 한편 안세영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것”이라며 협회 측에 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를 촉구했다. /뉴스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www.firefly.or.kr

2024 자연특별시 우주방문의 해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2024.
8/31(토) - 9/8(일)

주최: 무주군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주관: 무주반딧불축제재정위원회 | 문의: 0631324-2440